# 제 4 장

2009 마약류범죄백서

# 마약류단속 국제협력 동향

# 제1절 유엔의 마약류관련 활동 지원

## 1. 유엔의 마약류관련 기구

### 가. 유엔마약류통제본부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me : UNDCP)

- 유엔의 마약관련 최고 집행기구로서 1991. 3. 1. 기존 유엔사무국의 마약과(DND), INCB 사무국, 마약류남용통제기금(UNFDAC)을 통합하여 설립됨
- 유엔의 정책결정기구인 마약류위원회(CND)와 지역회의(HONLEA) 등의 회의를 주관하며, 세계 각국의 마약류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및 기술지원 등 마약류통제정책을 집행함

※ 1994. 12. 6.~ 12. 9. 유엔마약류통제본부(UNDCP) 사무총장 Mr. Giacomelli 방한
※ 1998. 8. 24.~ 8. 26. 유엔마약류통제본부(UNDCP) 사무총장 Mr. Pino Arlacchi 방한
※ 2000. 9. 4.~ 9. 6. 국제마약류통제위원회(INCB) 사무국장 Mr. Herbert Schaepe 방한

### 나. 국제범죄예방센터 (Centr e for International Crime Prevention : CICP)

- 범죄예방, 형사사법제도 개선 및 형법개혁관련 유엔기구로 주로 국제조직범죄, 부패 및 인신매매 관련 업무 담당

### 다.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 UNODC)

- 1997. 11. 1. 기존 별도로 운영되던 UNDCP와 CICP를 통합해 유엔마약통제및범죄예방위원회(Office for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 ODCCP)를 설치하여 마약류 및 조직범죄 등 국제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통합된 협력, 조정센터 마련
- 범죄 및 마약류 상호 관련사업에 대한 협력, 조정 및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ODCCP내 마약류통제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전략위원회(strategy committee)를 설치 · 운영
- 2002. 10. 1. ODCCP를 UNODC(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 United Nations on Drugs and Crime)로 개명

### 라. 국제마약류통제위원회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 INCB)

-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 의거 1968년 설립된 유엔마약류협약 이행 감시를 위한 독립된 준사법기관임
- 마약류의 합법적인 제조, 거래 및 판매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의료용 및 과학용 마약류의 공급량 파악 및 합법 마약류의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합법통로에서의 불법적인 유출을 감시하고,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각국을 지원함
- 한편, 마약류의 불법 제조 및 유통과 관련해서는 국내법 및 국제법의 취약성을 적발하여 이를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며, 마약류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파악함

### 마. 유엔마약류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 : CND)

-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6개 위원회 중 하나로서, 위원국은 53개국(임기 4년)이며 마약류통제정책 결정의 핵심이 되는 심의기구임
- 매년 3~4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함

※ 한국은 1991. 5. 위원국으로 피선되었고, 1995. 5. 재선됨
※ 제37차 회의 (1994. 4.)에서 의장국으로 피선되어 활동한 바 있음

### 바. 마약류법집행기관장회의 (Meeting of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 UN 마약위원회 산하 지역별 마약류 단속책임자 회의로 ① 아 · 태지역 ② 유럽지역 ③ 중동지역 ④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해지역 ⑤ 아프리카지역 회의가 있음

## 2. 유엔주도 각종 국제협약

### 가.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및 1972년 개정의정서

- 이전까지의 마약에 관한 국제협약을 단일화한 협약
- 아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및 코카인 등의 천연마약과 메사돈, 페치딘 등의 합성마약, 대마 등을 통제함
- 한국은 1964년 가입(1964. 12. 발효. 개정의정서 1975. 8. 발효)

### 나.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

- 관리대상물질은 주로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의약품에 포함되어 있는 향정신성물질로 각성제, 환각제, 항우울제 및 진통제 등이 있음
- 한국은 1978년 가입(1978. 4. 발효)

### 다. 1988년 마약류불법거래방지협약

- 불법 마약류의 국제적 이동 및 불법 자금세탁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1988. 12. 19. 채택되어 1990. 11. 11. 발효됨
-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에페드린, 아세톤, 무수초산 등의 원료물질을 통제 · 관리
- 주요내용
  - 자금세탁처벌, 불법수익몰수, 범죄인인도, 통제배달기법, 화학물질통제, 해상불법거래방지, 국제우편물규제 등임
- 한국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 1995. 12. 6. 공포 · 시행됨에 따라 국내법 정비를 완료했고, 1998. 12. 1. 협약가입을 위한 비준 준비절차를 완료한 후, 동년 12. 28. 협약가입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동 협약의 152번째 가입 당사국이 됨

## 3. 유엔의 마약류퇴치 프로그램

### 가. 마약류퇴치 10개년(UN Decade against Drug Abuse) 선포

- 1990. 2. 유엔에서 마약류문제에 관한 특별총회를 개최, 1991~2000년을 마약류퇴치 10개년으로 선포함

### 나. 세계 마약류퇴치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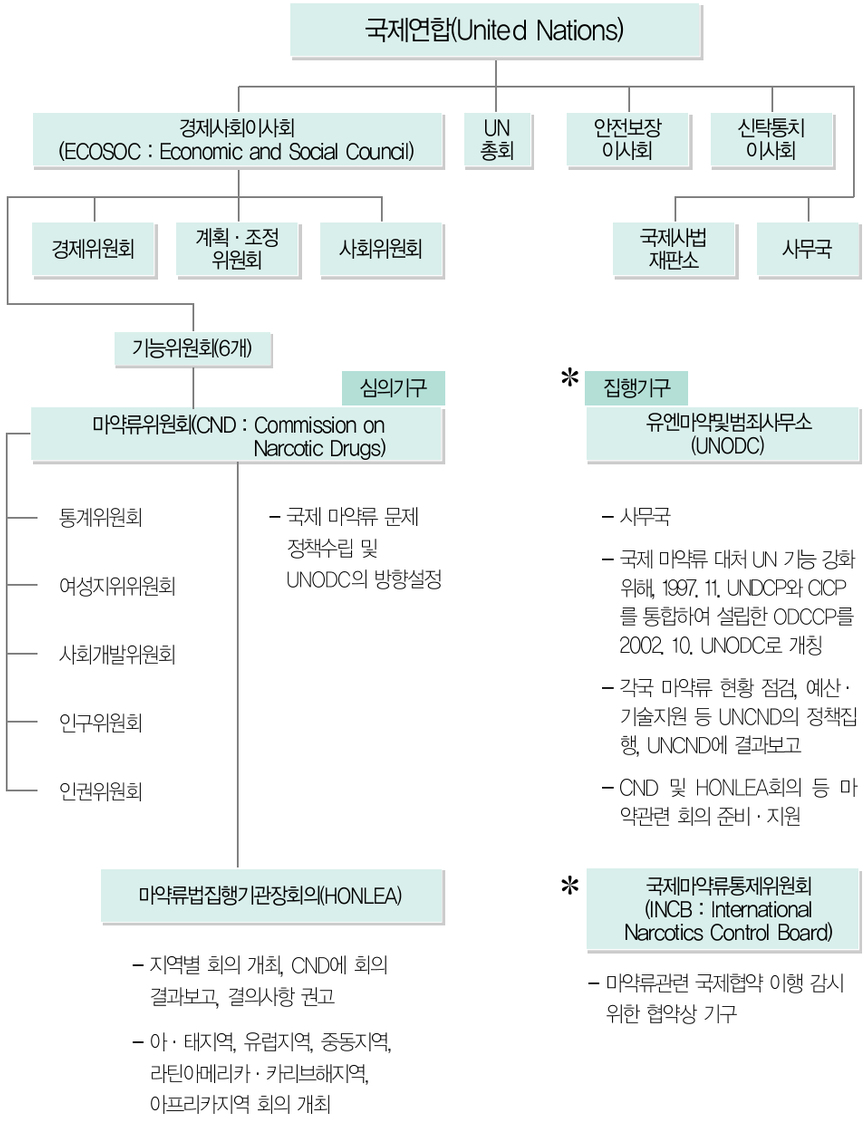
- 1987. 12. 유엔총회에서 매년 6. 26.을 세계 마약류퇴치의 날로 지정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촉구함

  ※ 한국은 이와 관련 6월 한 달 동안 정부유관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마약류퇴치 국민대회, 포스터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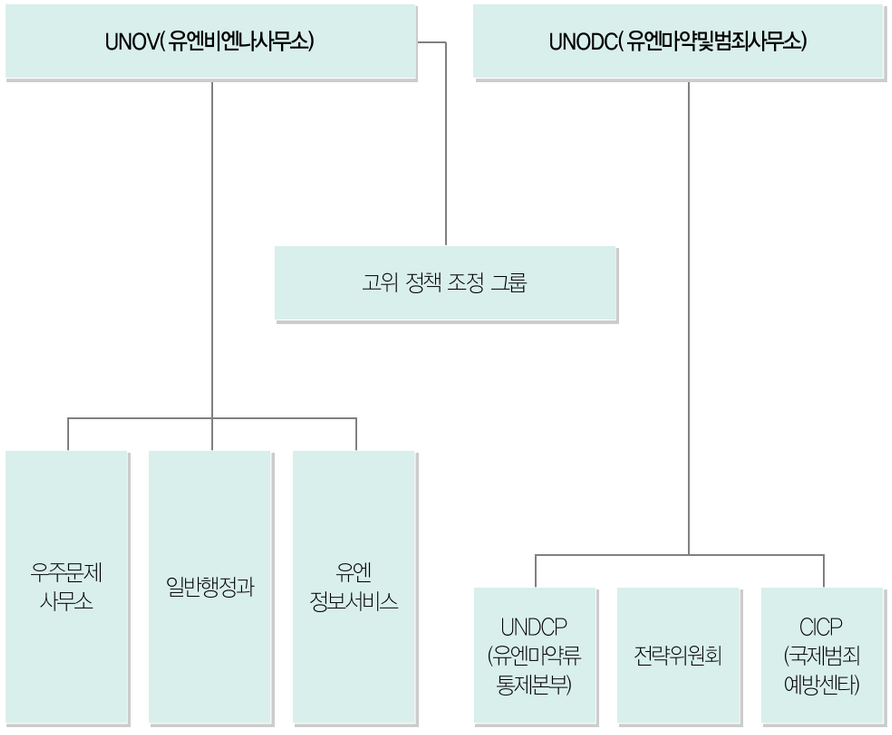
### 다. 유엔마약류퇴치 친선대사(UNDCP Goodwill Ambassadors) 제도

- 1991. 5. 제 34차 CND 회의에서 한국이 대사제도 창설 제의함
- 1992. 6. 한국출신의 정트리오(정명화, 정경화, 정명훈)가 초대 대사로 임명되어 1992. 8. 서울에서 대사활동을 시작, 로마, 뉴욕, 파리, 도쿄 등에서 연주회를 개최
- 현재 유엔마약류퇴치 홍보대사로는 멕시코출신 미NBA 농구스타 Eduardo Najera, 일본 축구스타 Hidetoshi Nakata, 브라질출신 미NBA 농구스타 Nene Hilario,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미NBA 농구스타 Vlade Divac, 이란의 축구전설 Khodadad Azizi, 그리고 일본 대중가수 Tetsuya Komuro가 적극적으로 활동 중임

## 《 국제연합 마약류관련 기구표 》



## 《 유엔 비엔나 사무국 기구표 》




# 제2절 국제협력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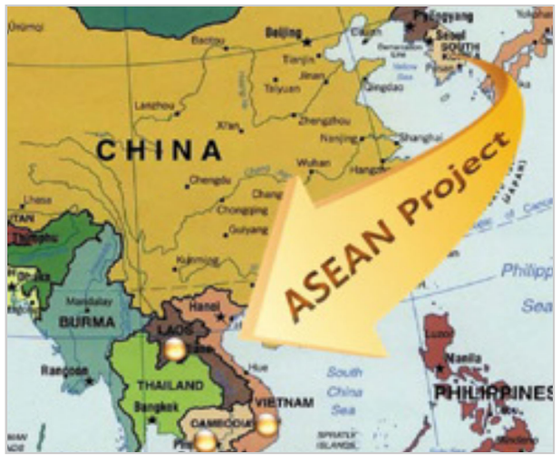
## 1.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창설 · 운영

- ADLOMICO(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는 서울 주재 각국 외국대사관을 회원으로 1989. 4월 첫 회의 이후 분기별로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한국,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일본, 이란,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필리핀, 루마니아, 러시아, 태국, 영국, 우크라이나, 미국, 베트남으로 총 21개국임
- 2009년도 확대회의는 2009. 9. 16.~18. 부산광역시 소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22개국, 4개 국제기구 등 국내외 총 180여 명의 마약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마약류 범죄 실태 및 현황, 불법 마약류 공급차단, 국제공조수사 등 협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음
- 분기별 ADLOMICO는 2009년 1/4분기, 4/4분기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20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그리고 경찰청, 국가정보원, 관세청 등 국내 6개 유관기관의 마약관계관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마약류 현황 및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마약류퇴치 지원사업 활동을 소개하고, 국제공조강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 1. 아세안 프로젝트

●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아세안 회원국 전원의 승인을 받아 아세안 사무국에 유보되어 있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이용하여 아세안 회원국의 마약퇴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수행을 위해 2007년 라오스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주요 아세안 회원국에 순회 출장소를 설치




아세안 프로젝트 지원지역

● 마약류퇴치국제협력연락사무소(LOICOG : Liaison Offic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Golden triangle region)는 국제마약류거래조직에 관한 현장정보를 수집하여 국내에 제공하는 한편, 한국의 마약수사 노하우와 선진 수사장비를 아세안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마약청정국인 대한민국의 국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최근 새로운 경제 블록으로 등장하고 있는 아세안 지역에 대한 마약퇴치전략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임

※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회원국은 태국 등 10개국, 인구 5억8천만 명, GDP 7,000억 달러

## 2 추진 배경

● 국내 마약류사범 동향 변화

– 그동안 마약류사범퇴치전략의 성공적 수행으로 국내 밀조조직은 거의 궤멸되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되고 있음

– 그러나 국제마약류거래조직은 마약청정국인 한국을 국제거래의 경유지로 활용하거나 한국인을 마약류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마약의 간접적 공급국가로 인식될 우려가 있음

– 그럼에도 현행 수사시스템은 종전의 투약자 진술을 기초로 한 국내 상선추적수사 기법에만 주로 의지함으로써 국제거래조직에 대한 근본적 척결에 한계를 보여 왔음

– 위와 같은 마약류사범 동향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마약생산·공급지의 정보를 취득하여 국제공조를 통해 국제거래조직의 배후를 척결함으로써 국제거래조직이 한국을 마약류의 경유지로 이용하는 사례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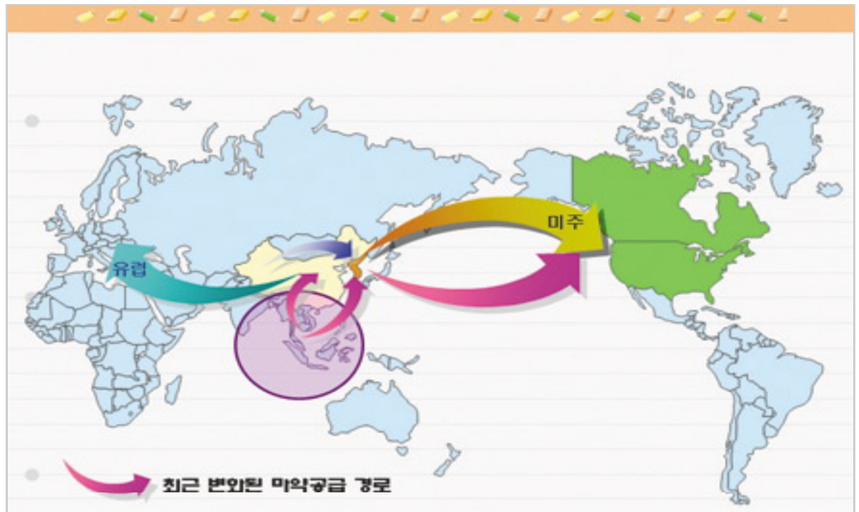
● 국제 주종 마약류 생산·소비 동향 및 공급경로 변화

– 주종 마약류

: 아편, 헤로인 ⇨ 필로폰

– 마약류 공급경로

: 중국 – 한국 – 미주·유럽 ⇨ 동남아 – 한·중 – 미주·유럽




【최근 마약류 공급경로 변화】

– 그동안 세계 최대의 헤로인 생산지인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유엔과 각국의 협조 하에 헤로인 원료 물질인 양귀비 재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양귀비를 커피 등으로 대체하는 대체작물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대대적 성공을 거두었음

– 이에 따라 국제 마약류거래 조직은 2003년 이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양귀비 재배를 통한 헤로인 생산 대신 작은 공간에서 화학적 공정을 거쳐 쉽게 제조할 수 있는 필로폰을 대체 마약물질로 생산하여 공급하기 시작하였음

– 또한 그동안 필로폰 최대 생산지 중 하나였던 중국에서 최근 필로폰 밀조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자 2004년 이후 중국 내 필로폰 제조책들이 비교적 필로폰 단속 역량이 미약한 라오스, 미얀마, 태국 국경부근,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로 생산 및 공급 근거지를 이동하고 있는 추세임

▶ 향후,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필로폰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한층 농후하므로 이를 차단할 필요성 긴요

## 3. 2009년 필리핀 마약류통제지원사업 개요

### 가. 사업목적

- 필리핀의 마약류통제기관과 마약류통제기법 공유 및 마약통제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마약의 공급, 소비 억제 능력 기반 마련
- 마약류 생산 및 거래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한 마약불법거래 및 생산조직에 대한 국제적 통제 강화

### 나. 추진실적

- 현지사무소 개소식 및 지원 물품 인도식

– 2009. 4. 22.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한국대사, 필리핀 마약단속청장, 필리핀 경찰청 차장, 필리핀 중앙수사국 부국장, 관세청장, 이민국장, 한인회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 사업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원물품을 인도

● 마약류퇴치 캠페인 공동 개최

– 2009. 4. 23. 필리핀 엥겔레스시 홀리앤젤 대학교 강당에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마약과장, 필리핀 마약단속청장, 앵겔레스 시장, 홀리앤젤 대학교 총장, 경찰서장, 지방검사, 학생, 시민, 관계공무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류퇴치 캠페인을 개최하였음

– 동 행사에서 대검 강력부장은 "마약류의 폐해 및 양국간 협력증진"을 주제로 연설하였으며 필리핀 마약단속청장 및 엥겔레스 시장 그리고 대학총장이 축사를 낭독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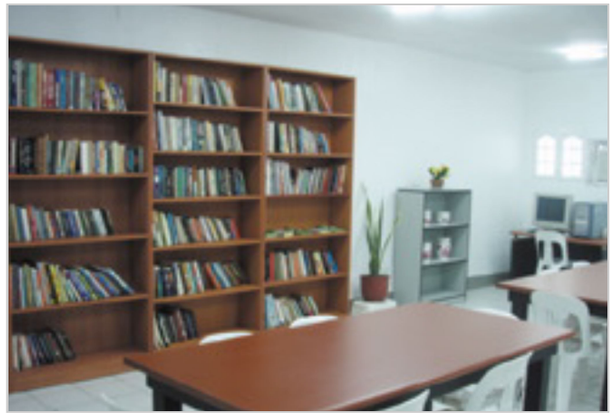
● 필리핀 마약치료재활센터 내 도서실 개관

– 2009. 4. 22. 필리핀 마약퇴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의 필리핀 방문시, 치료재활센터 내 도서실 개관 지원 의사 표명

– 2009. 5. 필리핀 한인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활센터 내 일부 수용실을 도서실로 개조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2009. 6. 8. 도서실 개관

– 약 20평 면적에 500여권의 도서, 컴퓨터 5대, TV 1대, DVD 플레이어 1대, 에어컨 1대, 책상 2개, 의자 15개, 책상 3개를 비치하였음

– 도서실은 재활원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독서 및 컴퓨터 교육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방문하여 재활원생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



● 필리핀 마약단속청 직원, 한국초청 교육훈련

– 마약류퇴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 마약단속청 직원을 한국으로 초청, 교육훈련을 통하여 한국의 선진 마약통제기법 전수

– 2009. 6. 1.~7. 3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의 마약감식실에서 필리핀 마약단속청 소속 마약분석관 2명에게 성분감식, 생체시료감식, 마약지문감식 등의 전문 기술을 교육함

– 2009. 8. 1.~9. 30.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필리핀 마약단속청 소속 마약수사관 2명에게 정보수집 분석, 피의자 체포, 미행 기법, 피의자 신문, 통제배달 등의 수사기법을 교육함

"한국의 마약감식기법 배우러 왔어요"

● 필리핀 바기오시 마약류퇴치 캠페인 개최

– 2009. 7. 22. 필리핀 바기오 소재 시립고등학교에서 필리핀 마약단속청 부청장, 바기오시 부시장, 학교장, 마약단속청 지부장, 학생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류퇴치 캠페인을 개최하여 마약류퇴치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영상물을 시청하였음

● 대검찰청, 필리핀 마약류퇴치 국제협력분야 수상

– 2009. 9. 8. 대검찰청은 필리핀 마약단속청 창설 7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필리핀 마약류퇴치 국제협력분야 수상

– 포상분야는 마약류퇴치에 기여한 개인, NGO, 국제협력분야 등 5개 이며, 필리핀 정부는 대검찰청이 수행 중인 마약류퇴치 지원사업을 높이 평가하여 동 분야 수상자 선정

※ 2008년도 국제협력분야 수상자는 미국 마약청, 중국 금독국, 일본 JICA, 대만 경제문화부로 공동수상하였는 바, 2009년은 대검찰청 단독 수상

● 필리핀 마약단속청장 등 3명, 대검찰청 마약과 주관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참가

– 2009. 9. 16.~9. 18.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하여 지역 내 마약류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공조협력을 강화

– 동 회의에서 필리핀 마약청장은 회의체 발전을 위한 기념사를 낭독하였음

● 필리핀 나보타스시 마약류퇴치 캠페인 공동개최

– 2009. 10. 13. 필리핀 나보타스시 시립체육관에서 대검찰청 마약과장, 필리핀 마약단속청장, 한국대사, 나보타스시장, 한인회장, 시민, 학생, 관계공무원 등 700여명이 참석하여 마약류퇴치 캠페인을 진행

– 대검찰청 마약과장은 "마약의 폐해 및 양국간 협력증진"을 주제로 기념사를 하였으며 이어 한국대사, 마약단속청장, 한인회장, 시장의 축사가 진행되었음

– 마약류 남용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와 마약류 남용 예방을 주제로 한 동영상을 시청하였음

– 필리핀 마약단속청장은 대검찰청 마약과장, 한국대사, 한인회장, 나보타스시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음

● 마약류퇴치 지원사업 종료식

– 2009. 10. 14. 대검찰청 마약과장, 필리핀 마약단속청장, UNODC 아태지부 법률자문관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마약류퇴치 지원사업 종료식을 거행

– 동 종료식에서는 마약류퇴치 지원사업의 성과를 보고하고 제 3차 지원물품을 인도하였으며 마약감식실을 개관하였음

# 제4절 2009년도 마약류관련 국제회의 참석

## 가. 제14차 아·태지역 약물단속회의(ADEC)

● 일본 경찰청 주최로 2009. 2. 17.~2. 20. 까지 4일간 동경에서 개최되었고, 26개국, 2개 국제기구의 마약관계관이 참석하여 지역 내 마약류 밀수 퇴치 현황 및 국제 공조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미국, 중국, 일본의 대표단과 접촉하여 상호 간의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필리핀 마약청장, 캄보디아 마약청장, 라오스 마약위원회 상임위원장, 태국 마약통제국장과 접촉하여 향후의 아세안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음

## 나. 극동지역 국제마약회의(IDEC)

● 미국 마약청(DEA) 주관으로 2009. 2. 24.~26. 까지 3일간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개최되었고, 14개국, 1개 국제기구의 마약관계관 65명이 참석하여 각 기관에서 수사 중인 마약류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서아프리카산 마약류의 확산에 따른 공조수사 방안을 논의하였음. 동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캄보디아 마약단속위원회위원장, 미 마약청 아태지부장을 접촉하여 상호 공조관계 협력을 유지하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음

## 다. 제52차 유엔마약류위원회(CND) 회의

● UN 주관으로 2009. 3. 7.~3. 15. 까지 5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고, 130개국, 16개 국제기구의 마약관계관들이 참석하여 제 20차 UN 마약특별총회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 수요 감축 및 밀거래 공급 차단 등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참석한 고위급회의에서는 세계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한 1998년 유엔 특별총회의 정치선언 및 행동계획 수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각국의 이행사항 및 실효성을 평가하고,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여전히 인류의 건강과 안보를 위협하는 마약류 문제의 대응을 위한 해결과제를 논의하여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정치선언 및 행동계획을 채택하였음

### 마. 아태지역 마약류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

- UNODC(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 인도네시아 국가마약위원회 공동주관으로 2009. 10. 5.~2010. 9. 5일간 인도네시아 덴파사르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 대검 마약 · 조직범죄부장이 참석하여 지역 내 마약류 밀거래 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암페타민류 각성제 밀조에 대한 대처 방안과 마약류 밀매에 따른 불법 수익 환수 방안을 중점 토론하였음. 또한 한국대표단은 UNODC 아태지부장, 필리핀 마약청장 등과 면담을 통하여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마약위원장과의 양자회담에서는 2010년 아세안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안을 도출하였음





# 제5절 국제 수사공조 사례

- 한 · 중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후 첫 범죄인 인수(2003. 5. 22. 서울지검)

  – 사건개요

  • 피의자 우○○은 2002. 1. 초순경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9.3킬로그램을 국내로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10여회에 걸쳐 중국산 필로폰 수십 킬로그램(약 100억원 상당)을 밀수입

  – 공조사항

  • 서울지검은 2002. 6. 6. 한 · 중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 범죄인 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 2003. 3. 20.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우○○을 여권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 수사 후 한국정보기관을 통해 서울지검에 추방형식 인도 제의

  • 2003. 4. 22. 중국 공안부 관계자에 정식인도 이행 촉구

  • 2003. 5. 19. 중국 공안당국의 범죄인 인도 수락의사 확인

  • 2003. 5. 22. 중국 심양시 소재 심양국제공항에서 서울지검 마약수사관 2명이 신병을 인수 받아 귀국하여 5. 23. 구속영장 발부받아 집행

  • 국내에서 필로폰의 밀제조사범들이 중국으로 도피하여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제조한 후 국내와 제 3국으로 밀수출하는 것을 차단함과 동시에 그 전에는 중국으로 출국할 경우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였는데 이 경우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를 이끌어 냄으로써 마약사범들의 도피처는 더 이상 없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줌

- 미국 마약청(DEA) 등 범죄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2003. 6. 29. 서울지검)

  – 사건개요

  • 2003. 6. 29.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 레이브 파티 현장에서 한국인 대학생 곽○○ 등 3명과 미군 9명을 MDMA 밀매 · 투약 혐의로 각 검거

– 공조사항

- 서울지검은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내사하여 혐의자들을 확인한 후 2003. 6. 29. 미국 마약청(DEA), 미 육군 범죄수사사령부(CID), 미공군 방첩수사대(OSI) 등과 공조하여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
- 내국인 3명은 국내에서 신병처리하고, 미군 9명은 행정협정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미 헌병대에 신병 인계
- 향후 DEA, CID, OSI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합동단속을 하기로 협의

● 인천공항을 경유하려한 아편 밀수사범 공조수사(2003. 12. 5. 인천지검)

– 사건개요

- 2003. 12. 5. 인천공항에서 태국을 출발하여 인천공항을 경유, 미국 애틀란타로 향하던 미국인의 수화물 가방을 정밀 검색하여 아편 9.88㎏을 발견하고, 피의자 나○○○ ○○○○(23세, 미국인) 외 4명을 검거토록 하고, 아편 20㎏을 압수토록 공조

– 공조사항

- 2003. 12. 4. 19:30경 대한항공으로부터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가방에 이상한 물건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
- 가방을 정밀 검색하여 아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한항공과 협조하여 위 가방의 주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미국 애틀란타로 향하는 가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미국 마약청에 상황을 전파하고 공조 요청
- 미국 마약청이 애틀란타에서 운반자 3명과 인수책 2명 등 5명을 검거함과 동시에 아편 20㎏을 압수하는 개가를 올림

● 중국 인터폴과 공조하여 필로폰 밀수사범 구속(2004. 8. 30. 수원지검)

– 사건개요

-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마약 밀매단과 연계하여 중국 훈춘에서 러시아 자루비노항을 경유, 속초항을 통해 필로폰 약 3㎏을 밀수, 국내에 유통시킨 필로폰 밀수조직 속칭 '배사장파' 총책 배○○(남, 51세) 등 17명을 적발하여 이중 10명을 구속기소, 2명 불구속, 5명 지명수배

※ 필로폰 122g 압수

– 공조사항

- 필로폰 소지혐의로 구속된 장○○(천안 송악파 부두목)로부터 중국내 조선족 필로폰 공급조직과 밀수 총책 배○○에 대한 정보 입수(2004. 5.경)
- 필로폰 밀수가 기존의 인천공항이나 인천항이 아닌 속초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속초항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중국 조선족 보따리상들을 중심으로 2004. 5.경부터 집중적으로 내사착수
- 2004. 7. 25. 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연변주 공안구 내 간수소'에 불법체류 혐의로 구금되어 있다는 정보 입수
- 2004. 7. 27. 외교통상부 동북아 2과를 통해 위 정보내용을 확인
- 2004. 7. 27. 경찰청 외사3과, 주중대사관을 통해 중국 인터폴에 배○○의 범행내용, 체포영장 발부사실, 지명수배된 사실 등을 통보하고 추방요구
- 2004. 8. 27. 중국 인터폴(북경대사관, 경찰청 외사3과 경유)로부터 배○○에 대한 추방계획 통보 받음
- 2004. 8. 28. 10:50경 연길발 CA143편으로 국내로 추방
- 2004. 8. 28. 14:10경 인천공항 도착 후 체포

● 한 · 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수(2004. 5. 6. 서울중앙지검)

– 사건개요

- 피의자 프○○ ○○(61세, 중국계 미국인)은 2002. 2. 27. 홍콩 소재 첵락콕 공항에서 황○○ (중국인)을 교사하여 항공편으로 필로폰 약 662g을 국내에 밀반입

– 공조사항

- 서울중앙지검은 한 · 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 법무부를 통해 미국 측에 신병인도를 요청 후 미국 측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신병 인도 통보

- 2004. 5. 2. 수사관 2명 출국 후 LA 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신병 인수

● 캐나다인 관련 국제마약류 밀반입사건(2005. 2.~ 7. 수원지검)

– 사건개요

- 2005. 2. 8.과 같은 달 10. 캐나다에서 밀수된 필로폰 3㎏ 중 1,900g과 엑스터시 8,832정을 국내 보관책인 최○○과 주○○으로부터 각 압수하고, 이 압수물들이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마약 밀수조직(한국계)이 일본 야쿠자에게 전달할 물건이었음을 확인하여, 캐나다 마약밀수 조직원인 에○○○(밀수총책), 소○○(운반책관리), 최○○(운반책관리)과 운반책인 황○○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캐나다 경찰 및 일본 검찰과 공조수사

– 공조사항

- 2005. 6.경 주 홍콩 캐나다 경찰 연락관과 위 조직에 대한 공조수사 위한 회의
- 캐나다에서 수사 중인 코카인 밀수사건 수사기록 사본 송부의뢰, 마약밀수 배후인 국제 폭력조직 삼합회의 개입여부, 캐나다 거주 마약밀수사범 최○○, 소○○의 추방문제 등 논의
- 일본에 검거되어 조사 중에 있던 한국인 마약운반책인 강○○과 이○○에 대한 수사기록 사본을 송부 받는 등 수사 진행상황 통보확인

● 한 · 중 · 괌 연계 필로폰 밀수사건(2006. 8. 23. 서울중앙지검)

– 사건개요

- 2006. 8. 12. 중국 청도발 여객선을 통해 인천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다음 같은 달 23. 인천공항에서 괌으로 필로폰 약 530g을 소지한 채 출국하려다가 검거되어 미수에 그침

– 공조사항

- 세관, 국정원 등 국내 유관기관 및 미국 마약청(DEA)과 공조하여 국내 밀수사범 뿐만 아니라 괌 현지 마약 밀매사범까지 검거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수사에 착수
- 2006. 8. 12. 중국 청도발 여객선을 통해 인천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하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공범 검거를 위하여 통과시킨 다음 같은 달 23. 인천공항에서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530g이 든 가방을 건네받아 괌으로 출국하는 운반자로부터 위 필로폰을 수거하여 압수
- 운반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검찰 마약수사관, 세관 및 국정원 등 3명이 괌 현지까지 동행토록 한 후 괌 현지 밀매조직과 접선을 위해 대기하던 공범을 미국 마약청(DEA)으로 하여금 검거하게 하고, 국내에 있는 피의자 및 관련 공범 검거

● 홍콩 · 한국 · 일본 연계 필로폰 밀수사건(2007. 11. 9. 부산지검)

– 사건개요

- 일본 폭력조직 '야쿠자' 3대 패밀리 중의 하나인 '이나가와카이'의 이○ ○○○○(야쿠자 중간보스)와 오○ ○○○○(야쿠자 중간보스, 필로폰 가공전문 기술자)이 중국산 필로폰을 홍콩을 거쳐 국내로 밀수입한 후 가공 및 재포장 과정을 거쳐 이를 재차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여, 2007. 9. 28. 경 홍콩발 김해공항행 항공기에 필로폰 약 615g을 소지한 채 국내로 들어와 밀수입 하고, 같은 해 11. 10. 경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수사기관에 검거되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전량 압수

– 공조사항

- 세관과 공조하여 일본 '동경세관 국제정보센터'로부터 본건 피의자 '이○ ○○○○'가 국내로 자주 출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피의자들 관련 마약범죄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들의 국내외 움직임을 포착한 후, 서울 소재 호텔에 묵고 있던 피의자들을 추적하여 필로폰을 소지한 채 출국하기 직전 검거

● 한 · 중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수(2008. 9. 10. 서울중앙지검)

– 사건개요

- 피의자 오○○○ ○○(41세, 나이지리아인)는 2002. 5. 16.경부터 같은 해 11. 29.경 사이에 내국인 여성 10명 등을 마약운반책으로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코카인 약 33㎏ 및 대마 약 40㎏을 페루, 태국, 가이아나에서 한국, 네덜란드, 일본, 브라질, 영국으로 밀수입 및 판매목적으로 소지

– 공조사항

- 2002. 12.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인터폴에 지명수배 의뢰
- 2003. 1. 10. 프○○의 조직원인 공범 우도우 아이케이 등 3명 구속기소
- 2003. 2. 27. 프랑스 리옹 소재 인터폴본부 사무총국에서 수배서 발행, 배포
- 2003. 9. 25. 서울지검 주최로 프○○를 검거하기 위한 검찰청, 경찰청,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 회의
- 2003. 10. 초 주한 독일대사관으로 프○○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경찰청 인터폴을 통하여 독일 인터폴에 검거 요청
- 2003. 10. 21. 인터폴,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에서 프○○ 검거
- 2004. 2. 16. 인도재판을 심리한 독일 헤센주 지방정부에서 한국과 함께 인도요청을 한 덴마크로 인도 결정하여 신병을 덴마크로 송환
- 2004. 5. 21. 덴마크 질란트시 소재 아루후스구치소에서 재판 대기 도중 탈옥, 중국으로 잠입
- 2007. 7.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외교통상부를 통해 중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
- 2007. 2. 14. 중국 선양시에서 중국 공안당국이 프○○ 체포
- 2007. 9. 28. 중국 선양시 소재 고급인민법원 대한민국으로 '인도조건 부합' 판결
- 2008. 4. 23.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결 비준
- 2008. 9. 10. 법무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 5명이 중국 요녕성 선양시 타오시엔 국제공항에서 신병인수
- 2008. 9.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 · 조직범죄수사부, 피의자 프○○ 구속기소
- 2009.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프○○에게 무기징역 및 벌금 2억원 선고

● 헤로인 원료물질 무수초산 10.64톤 압수(2009. 8. 17. 서울중앙지검)

– 사건개요

- 피의자 박○○는(32세, 한국인)은 파키스탄인 2명과 공모, 2009. 2. 13. 인천항에서 무수초산 5톤을 섬유로 위장하여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 밀수출하고, 2009. 8. 17. 다시 인천항에서 무수초산 10.64톤을 섬유로 위장하여 중국해운 소속 외항선에 선적하여 밀수출하려 함(이란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 카불로 수출 예정이었음)
- 2009. 2. 13. 박○○는 인천항에서 무수초산 5톤을 20리터들이 용기 250개로 수출용 원단박스로 포장하여 컨테이너에 은닉한 후 파키스탄 카라치항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 카불로 밀수출함
- 2009. 4. 피의자 박○○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파키스탄인들을 만나 무수초산 10톤을 3억원에 밀수출할 것을 합의
- 2009. 8. 17. 인천항에서 중국해운(주) 소속 외항선 'XIANG TAI'호에 선적하여 이란 반다르 압바스항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 카불로 밀수출 시도

– 공조 사항

- 본건 수사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 · 조직범죄수사부는 서울세관, 미국 마약청 한국지부, 파키스탄 마약수사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정보를 공유하여 무수초산 밀수출을 차단하였음